

古里 3號機 한週期 無停止運轉

66억7천332만kWh의 國內最大 연속발전량도 수립

古里原子力 3호기는 지난 '87년 11월 12일 제 3주기 核燃料 再裝填을 마치고 12월 10일 11時 8分 系統併入 후 '88년 10월 9일 2時7分 제4주기 核燃料 再裝填 및 定期補修工事を 위한 計劃停止까지 304일이라는 國內 최초의 한주기 無停止連續運轉을 달성하였다.

이는 국내 95만kW급 原電의 최장 연속운전 기록인 고리 4호기의 235일의 更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한週期 無停止連續運轉記錄이며, 또한 66億 7,332萬kWh의 새로운 國內 最大 連續發電量記錄도 세운 것이다.

이번 기록은 국내 原電의 運轉經驗과 原子爐 運轉年數(REACTOR · YEAR)를 감안한다면 괄목할 만한 실적이며, 특히 한週期 無停止運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連續運轉記錄과는 다른 큰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週期 連續運轉의 意義

原電運轉의 최대 과제는 完璧한 安全性 確保, 經濟性 追求, 補修効率 提高 및 利用率 向上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安全性(SAFETY)概念에 의해 設計된 原電의 한주기 無停止連續運轉記錄은 發電設備의 誤動作, 人間失手 뿐만 아니라 자연의 도움 등

이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서 古里 3호기의 이번 쾌거는 原電運轉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克服한 원전운전사에 큰 획을 긋는 大事라 할 수 있으며 원전 運營, 補修技術 自立의 里程標로 評價된다.

또한 88 서울올림픽을 훌륭히 치루어낸 韓國人의 矜持와 더불어 에너지自立을 위한 강한 意志를 표출함으로써 國民의 信賴度 向上은 물론 에너지피어, 電力文化의 先進化를 향해서 큰 一步를 내디딘 것이다.

어려움 克服을 위한 意志의 結集

최초의 韓電 주도형으로 건설된 古里 3호기는 시운전 및 商業運轉 초기에 機器 고장으로 정지가 가끔 발생해 內外의 눈총을 받기도 했으나 이러한 어려움이 오늘의 記錄樹立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이번 古里 3호기의 連續運轉記錄 樹立은 태풍, 고기떼유입 防止 등 자연의 惠澤을 입기도 했으나, 장기간 연속운전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 機器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한 豫防補修의 努力과 두번의 복수기관 누설에 의한 30% 出力감발 등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連續運轉의 고리를 이어준 第2發電所

洪周甫 所長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의 끊임없는 땀과 노력의 結果인 것이다.

尖端技術의 集合體인 原子力發電所의 無停止運轉記錄은 일부 슈퍼스타에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경기와는 달리 모든 직원의 결집된 意志와 協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원간의 人和團結이 큰 寄與를 했다고 할 수 있다.

古里原子力 第2發電所의 전직원들은 이번 記錄樹立의 기쁨과 함께 3호기가 겪은 哀歡과 逆境, 남모르게 쏟은 정열과 愛情의 지난날을 回顧하며 고장으로 출력을 감발할 때의 原因究明, 對策樹立, 복구에 밤을 지새던 나날들이 이번 기록을 위한 産苦의 陣痛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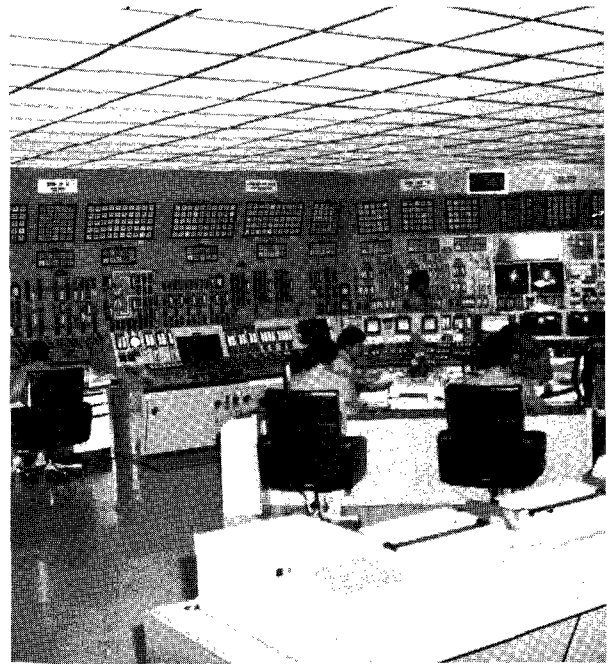
原電 安全性과 信賴性 確保

지난 9월 10일 울진원자력 1號機가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現在 원전이 國內 전력생산의 56%로 電力需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에 의한 발전량이 점차 增加함과 동시에 民主化, 地方化 및 言論의 活性化 등으로 國內에서도 住民들의 安全性에 對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전 10年을 맞아 앞으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國民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安全性이 더욱 要求되는 現시점에서 古里 3號機의 이번 記錄의 개가는 原電의 安全性과 信賴性 確信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發電設備 最適化 運營

304일이라는 한週期 無停止 연속운전기록 수립은 국내 95만kW급 原電의 先行 發電所로서 앞서가는 面貌를 보여주는 전 職員의 일치단결된 和合의 소산으로 古里 제2발전소에서는 今年 重點事業을 “發電設備 最適化 運營”으로 정하고 安全性 管理體系 定立, 長期運營 補修



計劃 樹立, 發電停止 再發 防止對策 樹立, 각종 技術討論會 개최, 심도있는 運轉員 教育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번 기록은 미리 예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새로운 運轉技術日立과 長期計劃 수립을 위한 출발점

지금까지의 노력은 高品質의 안정된 電氣의 供給이 “最善의 奉仕”라는 기치 아래 다음 週期 운전에 연결될 것이며, 이번 기록을 運營技術水準의 향상과 함께 날로 발전하고 있는 韓國 원전의 귀감이 됨으로써 향후 원전의 새로운 운전에 自信心을 갖고 일할 수 있는 礎石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제 古里 第2發電所 全 직원들은 지난 주기의 運轉記錄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주기의 또다른 榮光을 위한 定期補修工事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韓國電力公社의 기술자립의 든든한 도약대가 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蓄積하고 있다.